

엠비드? 요키치? 불붙은 NBA MVP 레이스



▲ 엠비드(왼쪽)와 요키치. 사진=연합뉴스

2022-2023시즌 미국프로농구(NBA) 최우수선수(MVP) 경쟁이 치열하다. 역대 4번째 MVP 3연패에 도전하는 니콜라 요키치(28·덴버)와 생애 첫 MVP 수상을 기대하는 조엘 엠비드(29·필라델피아), 두 센터 간의 자존심 싸움이 시즌 막판까지 불을 뿜고 있다.

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NBA 사무국은 전날 MVP 후보 랭킹에 요키치가 1위, 엠비드가 2위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MVP는 기자단 투표로 뽑기 때문에 이 순위가 큰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는다. 다만 지난달부터 요키치와 엠비드가 이 랭킹에서 1·2위를 놓고 다투는 것을 보면 MVP는 둘의 각축전으로 압축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지난 두 시즌 연속 MVP를 차지한 요키치는 이번 시즌에도 중반부터 엄청난 활약으로 MVP 3연패가 유력해 보였다. 그런데 엠비드가 시즌 후반부 맹활약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데 성공했고, 지난달 17일 발표에서 NBA 사무국이 처음으로 엠비드를 요키치 위에 올려 놓으며 MVP 레이스가 더욱 흥미진진해졌다.

요키치도 팀을 서부컨퍼런스 1위로 이끄는 등 활약은 엠비드 못지않다. 다만 'MVP 3연패'가 주는 상징성이 워낙 크기에 이번 수상을 위해서는 더 큰 업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까지 MVP 3연패는 윌트 체임벌린, 빌 러셀, 래리 버드 3명만이 이름을 올려놓은 고지로,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조차 달성하지 못한 엄청난 기록이다.

오타니, 한 경기 투수, 타자로 '피치 클록' 위반 ... MLB 최초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의 살아 있는 전설로 입지를 굳혀가는 오타니 쇼헤이(에인절스)가 진기록을 남겼다. 투수와 타자로 잇따라 올해 빅리그에 도입된 '피치 클록'을 위반한 것이다. 투타 겸업 선수여서 가능했던 메이저리그 최초의 기록이다.



▲ '피치 클록' 위반 후 구심에게 이유를 묻고 있는 오타니(왼쪽). 사진=AFP

올 시즌 경기 시간 단축을 위해 MLB 사무국이 도입한 '피치 클록' 규정에 따라 투수는 주자가 없으면 15초, 주자가 있어도 20초 이내에 반드시 투구해야 한다. 또 타자는 '피치 클록'이 종료되기 8초 전에 무조건 타격 자세를 취해야 한다. 투수가 이를 어기면 '볼 1개'가, 타자가 어기면 '스트라이크 1개'가 자동으로 주어진다.

오타니는 5일 시애틀의 T모바일 파크에서 열린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경기에서 투수로 1회 말 1사 2루에서 칼 몰리의 타석 때 초구를 20초 안에 못 던졌다. 주심은 골장 볼을 선언했다. 오타니는 2구도 볼을 던져 불리한 상황을 맞았지만, 후속 타자를 연속 삼진으로 잡아냈다.

또 6회 초에는 타석에서 피치 클록 종료 8초 전까지 타격 자세를 취하지 않아 스트라이크 1개를 손해 봤다. 그러나 오타니는 볼넷을 골라 걸어 나갔다.

오타니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경기를 마치고 심판과 만나 (궁금증을) 해결했다"며 "앞으로는 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트 복귀 늦어지는 나달, 메이저 최다 우승 타이틀 경쟁 불리

'흡신' 라파엘 나달(14위·스페인)의 코트 복귀가 늦어지고 있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나달은 전날 SNS를 통해 프랑스의 로크브뤼 카프 마르탱에서 4월 8일~16일까지 열리는 남자프로테니스(ATP)투어 몬테카를로 마스터스 불참을 선언했다. 그는 지난달 이 대회 출전 등록을 한 바 있다.

나달은 "최고의 수준에서 경쟁할 준비가 안 됐다. 내 커리어에서 중요한 대회 중 하나인 몬테카를로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회복에 힘쓰고 있으며 빨리 복귀하기를 희망한다"고 적었다.

만 36세인 나달은 지난 1월 열린 올해 첫 메이저 대회



▲ 부상으로 몬테카를로 마스터스 불참을 선언한 라파엘 나달. 사진=shutterstock

인 호주오픈에 톰 시드로 출전했으나 2회전에서 탈락했다. 당시 엉덩이 부상을 입은 그는 당초 3월이면 코트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더구나 지금은 나달이 강한 면모를 보이는 클레이코트 시즌이다. 몬테카를로 대회는 4-5월 진행되는 클레이코트 시즌에 가장 먼저 치러지는 '마스터스 1000' 대회다. 마스터스 1000은 4대 메이저 대회와 연말 열리는 왕중왕전인 파이널스 다음으로 많은 랭킹 포인트를 준다.

몬테카를로 대회 역대 최다(11회) 우승자인 나달은 메이저 대회 남자 단식 최다 우승자 타이틀을 두고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두 선수 모두 통산 22회 우승을 기록 중이다.

한남체인 내 코웨이 & 실드라이프

Covid-19 소독제품
여러종류 마스크 판매

정수기 / 비데 / 공기청정기 / 연수기
실드라이프 전기매트, 전기장판

정수기 판매 및 렌탈

714.523.9588 / 714.471.1843 5301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 한남체인 내